

『素問·水熱穴論』의 “腎者，胃之關”에 대한 研究

방 정 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內容摘要

對於『素問·水熱穴論』之“腎者，胃之關”的研究

方 正 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通過『素問·水熱穴論』之“腎者，胃之關”的研究，得到了如下的結論。

1. 對於『素問·水熱穴論』之“腎者，胃之關”的內容，多醫家認為腎的大小便排泄機能。
2. “腎者，胃之關”的意義，可以認為如下。其一是，如果腎陽不作蒸化機能，則胃內受納的水穀，不能消化而發生積滯，腸胃的水濕並發生脹滿和浮腫的病症。由于這的病機，可以說明了腎者胃之關的意義。其二是，水腫病多兼眼下浮腫和頸脈動及咳嗽症，這兼症都關於胃。別方面水腫病兼陰股間寒和足脛腫症，這兼症都關於腎陽虛。通於以上兩個方面，可以說明腎者胃之關的意義。其三是，在『內經』對於水腫的治法，強調了五藏陽氣的運行和水濕積滯的除去。由於這種治法，可以見知腎者胃之關的意義。

關鍵詞：腎者 胃之關，水腫，腎陽虛

I. 序論

건강과 장수를 갈구하는 것은 인간의 本態的 욕구로, 의학의 태생과 발전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욕구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학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하는 목적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한의학에서는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3가지 요소를 精·氣·神으로 설정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精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精은 腎·胃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腎은 先天之精을 주관하고 胃는 水穀을 받아들여 腐熟작용을 발휘함으로써 後天之精을 생성하게 된다. 즉, 腎과 胃는 인체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精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 장기라고 할 수 있고, 그 기능에 있어 상호간에 서로 연계되어 있다.

『素問·水熱穴論』에서는 腎과 胃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腎者, 胃之關”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가들이 본 구절에 대해 단순히 腎의 배설과 관련시켜 설명함으로써 그 의미를 축소시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위에서 언급한 腎과 胃의 관계성과 관련하여 역대 의가들과는 다른 방면에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素問·水熱穴論』에서는 腎이 水를 모아서 水腫의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腎者, 胃之關”이라고 설명하면서 關門이 不利하기 때문에 水氣가 몰려 附腫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문장과 관련하여 역대 주석가들은 대부분 “腎者, 胃之關”의 의미에 대해 腎이 開竅하는 前陰과 後陰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다. 즉, “關”의 의미를 水穀之味の 消化·吸收 과정을 거친 뒤 남는 糟粕이 배설되는 關門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關”의 의미를 糟粕이 배설되는 關門의 의미로만 이해할 경우 그 의미가 지나치게 협소해 질 수 있다. 이에 논자는 역대 의가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아울러 “關”의 의미를 糟粕의 排泄處인 關門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胃의 기능이 발휘되는데 있어 필요한 중요한 관건의 의미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素問·水熱穴論』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帝曰, 腎何以能聚水而生病? 岐伯曰, 腎者, 胃之關也, 關門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 上下溢於皮膚, 故爲附腫, 附腫者, 聚水而生病也.(黃帝께서 말씀하셨다. “腎은 어떻게 해서 水를 모아서 병을 생기게 할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腎은 胃의 關이니 關門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水氣가 몰려 그 類를 따르는 것입니다. 위 아래로 피부에 넘치므로 附腫이 되는데, 附腫은 水氣가 몰려 병이 생긴 것입니다.”)¹⁾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213.

이상의 『素問·水熱穴論』에서 제기된 “腎者, 胃之關”과 관련된 역대 의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역대 의가들의 견해

1) 王冰, 馬蒔

王冰은 關의 의미에 대해서 出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腎이 下焦를 주관하고 膀胱이 腎의 府가 되며 前陰과 後陰에 開竅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腎의 氣化 작용이 발휘되지 않아 二陰이 막히면 胃가 填滿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關의 의미를 前陰과 後陰을 통해 배설되는 糟粕의 관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二陰이 막혀 糟粕이 소통되지 못하면 胃가 填滿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한 水濕이 停滯되어 疝腫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 이상의 해석에서 살펴보듯이 王冰의 경우 腎의 氣化작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胃의 작용과 연계시킨 것이 아니라 膀胱의 소변 배설과 연계시키고 있다. 물론, 胃의 填滿 증상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다만 二陰이 막혀 大小便이 배설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다. 즉, 腎이 下焦를 주관하고 膀胱과 腑리관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腎의 氣化작용을 통해 二陰이 通한다고 하여, 腎의 氣化작용을 大便과 小便의 배설 기능에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關의 의미를 胃에서 腐熟작용을 거친 후 남게 되는 糟粕의 배설 경로로만 인식하게 된 것이다. 明代의 馬蒔는 王冰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글자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게 王冰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³⁾.

2) 吳崑

吳崑은 胃는 水穀을 받아들이고 腎은 二陰을 주관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前陰이 利水를 하고 後陰이 利穀을 하기 때문에 腎이 胃의 關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關門, 즉 二陰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水가 行해지지 못하여 下焦에 쌓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 이상의 吳崑의 해석은 王冰의 해석과 비교 할 때 별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關門이 不利할 경우 下焦에 水가 쌓인다는 점을 강조하여 腎의 기능 상실로 인해 水腫이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2)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730.

“關者, 所以司出入也, 腎主下焦, 膀胱爲府, 主其分注, 關竅二陰, 故腎氣化則二陰通, 二陰闕則胃填滿, 故云腎者胃之關也. 關閉則水積, 水積則氣停, 氣停則水生, 水生則氣溢, 氣水同類, 故云關閉不利, 聚水而從其類也.”

3) 馬蒔 撰. 黃帝內經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377.

4)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246.

“胃納水穀, 腎主二陰, 前陰利水, 後陰利穀, 是腎乃胃之關也. 若關門不利, 則水不行而聚于下焦.”

3) 張介賓

張介賓은 이전 의가들의 견해에서 더 나아가 關의 의미를 “門戶要會之處”로 인식하면서 배출뿐만 아니라 啓閉를 통해 出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關이 不通하면 癥閉하여 疝腫이 발생하고, 關이 不固하면 滑泄하여 元氣를 脫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關의 의미를 군사 요충지를 잡고 있는 의미로까지 확장하여, 一身의 元氣가 腎에 의뢰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오장육부의 바다인 胃의 기능이 발휘되는 관건이 腎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 본 구절에 대한 張介賓의 해석은 腎과 胃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胃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元氣를 潛藏하고 있는 腎에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張介賓은 許叔微의 “補脾不若補腎”의 이론을 근본을 구하는 방도라고 평가하면서 脾胃의 기능과 腎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그 의미에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있다.

4) 張志聰

張志聰은 인체의 水가 中焦인 胃가 받아들인 水穀을 통해 생성되고, 下焦의 決瀆기능에 의해 배출됨을 설명하면서, 關門이 不利하면 水가 쌓여 疝腫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水가 흐르지 못하여 쌓이는 것에 대해 水를 주관하는 腎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⁶⁾. 이상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張志聰은 본 구절에 대한 腎의 의미를 소변 배설의 측면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三焦를 決瀆之官으로 인식하고, 三焦 가운데 下焦가 주로 決瀆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腎이 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腎이 水腫과 관련이 깊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될 수 있지만, 腎이 胃의 관문이 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5) 高士宗

高士宗은 본 구절에 대해 腎이 膀胱과 연락되어 下焦를 주관하므로, 胃에서 생성된 水氣가 흘러가는 關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關門이 不利하게 되면 胃에서 변화된 水가 배출되지 못하여 水가 쌓인다고 설명하고 있다⁷⁾. 高士宗의

5)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p. 729-30.

“關者, 門戶要會之處, 所以司啓閉出入也. 腎主下焦, 開竅于二陰, 水穀入胃, 清者由前陰而出, 濁者由後陰而出, 腎氣化則二陰通, 腎氣不化則二陰閉, 腎氣壯則二陰調, 腎氣虛則二陰不禁, 故曰腎者胃之關也. 關閉則氣停, 氣停則水積, 水之不行, 氣從乎腎, 所謂從其類也. 愚按, 本節云關門不利, 則聚水而從其類者, 言關之不通也. 脈要精微論曰, 倉廩不藏, 是門戶不要也. 水泉不止, 是膀胱不藏也. 得守者生, 失守者死. 言關之不固也. 不通則癥閉而疝腫, 不固則滑泄而脫元, 職此之由, 總因腎敗. 夫胃爲五藏六府之海, 而關則在腎, 關之爲義, 操北門鎖鑰之柄, 凡一身元氣消長, 約束攸賴. 故許知可云, 補脾不若補腎者, 謂救本之道, 莫先乎此也. 誠萬古不易之良法.”

6) 張志聰 著.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 503.

“此言水由中焦入胃之飲而生, 從下焦決瀆而出, 故關門不利, 則聚水而從其類. 蓋腎者主水, 水不露流, 則水亦類聚矣.”

주장은 張志聰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膀胱을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역대 의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王冰은 腎이 下焦를 주관하므로 腎의 氣化작용을 통해 二陰이 通한다고 하였다. 즉, 腎의 氣化작용을 대변과 소변의 배설 기능에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關의 의미를 胃에서 腐熟작용을 거친 후 남게 되는 糟粕의 배설 경로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후 대부분의 의가들이 王冰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明代의 馬蒔는 王冰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글자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게 王冰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吳崑의 경우도 王冰의 견해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다만 關門이 不利할 경우 下焦에 水가 쌓인다는 점을 강조하여 腎의 기능 상실로 인해 水腫이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외에 張志聰과 高士宗은 腎이 下焦의 소변배설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의미를 축소시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水腫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張介賓은 기존 의가들의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胃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元氣를 잠장하고 있는 腎에 의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腎과 胃의 관계를 “腎者, 胃之關”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張介賓은 許叔微의 “補脾不若補腎”의 이론을 근본을 구하는 방도라고 평가하면서 脾胃의 기능과 腎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그 의미에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있다.

2. 논자의 견해

논자는 “腎者, 胃之關”의 내용에 있어 元氣의 내용을 언급한 張介賓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고자 한다. 즉, 關의 의미를 인체에서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역대 의가들은 본문에 “關門不利”라는 말이 나온 것을 근거로 하여 關의 의미를 대부분 대소변의 배설과 관련된 관문의 의미로만 이해하였다. 그러나 관문의 의미는 출입과 관련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요새처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예로 들더라도 국경의 관문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입구의 의미도 있지만,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요충지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 張介賓이 關의 의미를 “北門의 鎖鑰”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그렇다면 腎이 胃의 關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胃에서 소화시키고 난 뒤 발생하는 水穀의 糟粕을 배설하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胃가 水穀을 제대로 腐熟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素問·水熱穴論』에서 腎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 주로 水腫을 언급하

7) 高士宗 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395.

“腎所以聚水生病者, 腎絡膀胱, 主于下焦, 爲胃腑水注之關也. 關門不利, 水道不行, 則胃腑所化之水, 不能下出, 故聚水而從其類也. 水道不行, 則泛溢于外, 故上下溢于皮膚, 溢于皮膚, 故爲附腫, 附腫者, 皮膚脹滿, 水氣不行, 故聚水而生病也.”

고 있다. 이에 대해 王冰은 水腫 뿐만 아니라 胃의 填滿 증상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胃의 정상적인 활동에 관건이 되는 腎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水腫 및 胃와 관련이 되는 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한다. 이에 논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 징험해 보고자 한다.

첫째, 清代 의가인 繆希雍은 腎과 胃의 관계에 있어 腎의 眞陽을 강조하고 있다. 즉, 胃가 水穀을 받아들여 腐熟하여 消化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腎間 眞陽之氣의 熏蒸鼓動시키는 힘에 의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繆希雍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脾胃와 腎陽이 虛할 때 脾腎雙補丸을 사용하여 火를 補함으로써 土를 따뜻하게 하는 “益火煨土”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⁸⁾. 이상에서 繆希雍은 胃의 腐熟작용이 腎陽에 의해 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胃에서 받아들인 水穀이 제대로 소화되기 위해서는 체내 陽氣의 蒸化기능이 필요한데, 腎陽이 바로 蒸化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嚴用和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嚴用和는 脾를 보하는 것이 腎을 보하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이상의 繆希雍과 嚴用和의 견해는 소화불량이나 填滿 등의 食滯와 관련된 증상이 발생했을 때 消導之劑 등의 脾胃를 조절하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것은 腎陽의 虛가 그 원인임을 제시한 것이다. 비근한 예를 들면 밥술에 쌀을 담가둔다 하더라도 아궁이에서 불을 때지 않으면 밥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 腎陽의 蒸化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胃에서 받아들인 水穀은 소화되지 않고 積滯되어, 그 결과 腸胃에 水濕이 쌓이게 되어 脹滿浮腫 등의 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內經』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으니, 『素問·痺論』에서는 “腎痺者, 善脹, 尻以代踵, 脊以代頭.”¹⁰⁾라고 하여 腎痺證에 脹滿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素問·評熱病論』에서는 水腫病에 “煩而不能食”¹¹⁾한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니, 腎陽이 虛하여 水腫이 발생한 경우에 胃의 腐熟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여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善脹”이나 “煩而不能食”의 증상은 모두 腎陽이 부족하여 胃의 腐熟기능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히, 腎痺의 脹滿 증상에 대해 張介賓은 “腎者, 胃之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니¹²⁾, 胃의 腐熟기능과 腎陽의 상관성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內經』의 여러 편에서 水腫病을 설명하면서 주된 증상으로 脾胃와 관련이 있는 눈이 붓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반되는 증상에 있어서는 陽虛證

8) 任春榮 主編. 繆希雍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766.

“夫脾胃受納水穀, 必藉腎間眞陽之氣熏蒸鼓動, 然後能腐熟而消化之, 腎臟一虛, 陽火不應, 此內先天之眞氣, 丹溪所謂人非此火不能有生者也. 治宜益火之源, 當以四神丸加人蔘, 沉香, 甚者加熱附, 茴香, 川椒. …… 注意益火以煨土. 當脾胃虛及腎陽時, 則用脾腎雙補丸培補脾腎, 補火煨土.”

9) 陳大舜, 曾勇, 黃政德 엮음. 맹응재 外 9인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 329.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 162.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 124.

12)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p. 559-60.
“腎者胃之關, 腎氣痺則陰邪乘胃, 故腹善脹.”

과 관련된 증상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水腫病의 치법에 있어서 陽氣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水腫病이 胃와 관련이 있지만, 그 病因은 주로 腎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水腫病에 있어 脾胃와 관련된 증상을 제시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素問評熱病論』에서는 水腫病에 있어 눈 아래 부위 즉 안검이 먼저 붓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病機를 腎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¹³⁾. 눈 아래 부위인 안검은 『靈樞大惑論』에서 “肌肉之精爲約束”¹⁴⁾이라고 하였는데 約束이 바로 안검부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肌肉은 脾胃가 주관하는 부위이다. 그러므로 肌肉의 精에 해당되는 안검 부위가 붓는 것은 脾胃의 기능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편에서는 腎風(風水)에 의해 발생하는 水腫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본편에 나타난 水腫의 원인은 腎陽의 衰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腎陽이 虛하여 발생하는 水腫病의 증상 가운데 脾胃가 主하는 肌肉 부위인 안검에 浮腫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 이를 통해 “腎者, 胃之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靈樞脹論』에서는 水腫病이 처음 발생할 때 目窠 위가 막 자고 일어났을 때 처럼 약간 붓고 頸脈이 動하며 기침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겸하여 陰股 사이가 시리며 차고 정강이 부위가 붓는 증상을 언급하고 있다¹⁵⁾. 여기서 目窠는 안검을 뜻하는 것으로 안검과 脾胃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다. 頸脈은 人迎脈을 뜻하는데 足陽明經에 포함되는 穴로 역시 胃와 관련이 있다. 또한, 때때로 기침을 한다고 하였는데, 『素問咳論』에서는 기침을 하면서 얼굴이 붓는 것에 대해 胃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치료법에 있어 五輸穴 가운데 土에 해당되는 穴을 치료할 것을 제시하였다¹⁶⁾. 즉, 脾胃가 손상되어 腐熟과 運化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水穀의 精微가 轉輸되지 못하여 체내에 痰飲이 内生하여 咳嗽와 浮腫을 유발함을 설명한 것이다¹⁷⁾. 이상과 같이 水腫病에 수반되는 제반 증상은 脾胃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본편에서는 “陰股間寒”과 “足脛腫”이라는 증상을 제시하여 위에서 언급한 증상들과는 다른 病理機轉을 설명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寒症은 陽虛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下肢가 붓는 것은 陽氣가 부족하여 體内の 津液을 돌려주지 못한 결과 下肢에 津液이 몰려 발생하는 것이다. 즉, 본편에서는 구체적으로 腎陽이 虛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水腫病의 발생 원인이 脾胃의 기능 이상뿐만 아니라 陽氣 부족이라는 病因이 겸해짐을 설명한 것이다.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 124.

“諸有水氣者, 微腫先見於目下也. 帝曰, 何以言? 岐伯曰, 水者陰也, 目下亦陰也, 腹者至陰之所居, 故水在腹者, 必使目下腫也.”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342.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249.

“水始起也, 目窠上微腫, 如新臥起之狀, 其頸脈動, 時咳, 陰股間寒, 足脛腫, 腹乃大, 其水已成矣, 以手按其腹, 隨手而起, 如裹水之狀, 此其候也.”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 142.

“此皆聚於胃, 關於肺, 使人多涕唾, 而面浮腫氣逆也. …… 治藏者治其俞, 治府者治其合, 浮腫者治其經.”

17)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5. p. 437.

마지막으로 水腫病의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湯液醪醴篇』에서는 水腫이 발생하는 원인을 外感이 아닌 內傷이라고 밝히면서, 그 病機를 五藏 陽氣의 枯渴로 인해 津液이 전신으로 轉輸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水腫病의 치료에 대해 五藏 陽氣를 전신으로 퍼지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편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치료법은 옷을 따뜻하게 입어 陽氣를 보충해주고 繆刺法의 刺針을 통해 氣를 소통시켜 주며, 아울러 消化되지 않고 胃에 積滯된 水穀을 제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¹⁸⁾. 본편에서 제시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水腫이 발생하는 원인에 있어서 五藏 陽氣의 枯渴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津液이 轉輸되지 못하여 水腫이 발생하게 되는데, 치료법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면 胃에 積滯된 水穀으로 인해 발생한 水濕도 중요한 病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치료법에 있어서는 五藏 陽氣의 運行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五藏 가운데 전신의 활동과 관련이 깊은 것은 腎의 陽氣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본편의 내용은 腎陽이 枯渴되어 津液이 轉輸되지 못하여 발생한 水腫의 치료법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腎陽의 枯渴로 胃의 腐熟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그 결과 胃에 積滯된 水穀이 水濕을 内生하여 水腫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結論

以上的 考察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腎者, 胃之關”의 의미에 대해서 王冰은 腎의 氣化작용을 大便과 小便의 排泄기능에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關의 의미를 위에서 腐熟작용을 거친 후 남게 되는 糟粕의 排泄 경로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후 대부분의 醫家들은 王冰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張介賓은 기존 의가들의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胃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元氣를 潛藏하고 있는 腎에 의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腎과 胃의 관계를 “腎者, 胃之關”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2. “腎者, 胃之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즉, 腎陽의 蒸化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胃에서 받아들인 水穀은 소화되지 않고 積滯되며, 그 결과 腸胃에 水濕이 쌓이게 되어 脹滿·浮腫 등의 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內經』에서 腎痺證에 脹滿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 것과 水腫病에 “煩而不能食”의 증상이

¹⁸⁾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 49.

“帝曰, 其有不從毫毛而生, 五藏陽以竭也, 津液充郭, 其魄獨居, 孤精於內, 氣耗於外, 形不可與衣相保, 此四極急而動中, 是氣拒於內, 而形施於外, 治之奈何? 岐伯曰, 平治於權衡, 去宛陳莖, 微動四極, 溫衣, 繆刺其處, 以復其形, 開鬼門, 潔淨付, 精以時服, 五陽已布, 疎滌五藏, 故精自生, 形自盛, 骨肉相保, 巨氣乃平.”

발생한다고 한 것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3. 『內經』에서는 水腫病의 증상에 대해 눈 아래 부위 즉 안검이 먼저 붓고 頸脈이 動하며 기침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겸하여 陰股 사이가 시리며 차고 정강이 부위가 붓는 증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증상은 胃의 腐熟기능이 발휘되지 못하여 水濕이 정체된 것과, 腎陽이 虛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腎陽이 虛하여 陽虛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고, 겸하여 腎陽부족으로 胃의 腐熟기능이 발휘되지 못한 것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4. 『內經』에서는 水腫이 발생하는 원인에 있어서 五藏 陽氣의 枯渴과 胃에 積滯된 水穀으로 인해 발생한 水濕을 중요한 병인으로 설명하면서, 치료법에 있어서는 五藏 陽氣의 運行을 강조하고 있다. 즉, 腎陽의 枯渴로 胃의 腐熟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그 결과 胃에 積滯된 水穀이 水濕을 內生함으로써 야기된 水腫을 치료함에 있어 陽氣의 轉輸와 胃에 積滯된 水濕의 제거를 주된 치료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腎者, 胃之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參考文獻]

1.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005.
2. 張志聰 著.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3. 高士宗 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4.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5. 陳大舜, 曾勇, 黃政德 譯. 맹웅재, 박현국, 박경남, 김남일, 신영일, 김용진, 안상우, 김훈, 김홍균, 차웅석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6. 任春榮 主編. 繆希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馬蒔 撰. 黃帝內經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8.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0.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